

[**종합**]

골재 채취장에 직불금 '한심한 행정'

나주시·구례군 감사서 드러나... 징계 공무원에 표창도

나주시와 구례군이 용도 변경된 농지에 대해 현장 확인없이 쌀 직불금을 지불한 것을 비롯 직원들의 징계 기록을 누락시키는 등 공무원의 인사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남도의 '2008 나주시·구례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난 해 골재채취 등의 목적으로 전용된 15필지의 농지에 대해 현장

확인없이 101만원의 쌀 직불금을 지급했으며, 구례군도 용도가 바뀐 3필지의 토지에 대해 3년간 11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나주시는 또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인사 자료를 전산 입력하면서 A씨의 형벌 내용(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이 A씨의 형벌내용이 빠진 인사 기록카드를 토대로 2006년 명예퇴

직시 1개월 특별승진 및 퇴직수당 2천 4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나주시는 2007년도 공무원 근무평정과정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13명에 대해 최고 2.0점에서 최저 1.0점까지 감점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점 처리하지 않았고, 종합평정서열 명부 확정시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

다.

구례군도 감사결과 금품수수나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3명의 직원들에게 2007년에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례군이 지난 해까지 마산면에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조성한 지리산야생화타운은 설계사상 식재되어 할 금액과 수수료 등 34종의 초화류가 제대로 식재되지 않거나 말라죽어 총 3천3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박헌철 광주시 감사관실 조사담당 등 관계자들이 28일 장성군 동화면 승계리 일대에서 공무원 쌀 직불금 수령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국토 분열 ‘광역경제권’ 중단을”

민주 정세균 대표 오늘 국회 연설... 균특법 진통 예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계획'의 즉각적인 종단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 '5+2 광역경제권 계획'의 중단은 사실상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됐으며 '광역경제권 계획'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역발전특별법도 대폭적인 보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명박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밀어붙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는 국토분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난 40년 동안 헌법에 보장된 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헌법마저 무시하고 국토분열적 정책을 추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정 대표 비서실장인 김정 의원은 “정 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광역경제권 계획의 종단을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이라며 “막판 대표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날 국회 연설로 '5+2 광역경제권' 계획의 즉각적인 종단은 사실상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되는 효과를 갖게 되며 이는 곧 정기국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가린다

광주·전남 4,772명 적법성 여부 조사 착수

‘쌀 직불금’을 받은 광주·전남지역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자진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가운데 부당 수령자를 가려내기 위한 확인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 본청과 5개 구청 546명, 전남도 본청과 22개 시·군 그리고 산하기관 나 아에 반영되지 않은 수도 있다.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이 예산 반영에 반대 입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하는 등 소명기회를 준 뒤 현장조사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자진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가운데 부당 수령자를 가려내기 위한 확인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 본청과 5개 구청 546명, 전남도 본청과 22개 시·군 그리고 산하기관 나 아에 반영되지 않은 수도 있다.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이 예산 반영에 반대 입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신고에서는 공직자와 떨어져 사는 직계 존비속이 직불금을 받았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를 모르고 신고한 경우도 상

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의 경우 신고자 가운데 3~4명이 본인이나 가족들이 부당하게 쌀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신고한 사례가 있는 만큼 조사를 통해 부당수급자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의 조사 결과를 취합해 11월 초 부당수령자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일부 기관의 확인 조사가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취합된 결과의 발표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심사 등을 통해 부당 수령자로 최종 판단된 공무원과 가족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자를 징계할 예정 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먹고 살기도 힘겨운 마당에...

여수 등 전국 14곳 오늘 재·보궐 선거

2008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29일 여수 지역을 비롯, 전국 14개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관련기사 5면>

이번 재·보궐 선거는 지난 5월6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여수시 바 선거구 등 기초의원은 9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은 3곳에서 치러진다. 투표는 선거 지역에 설치된 195개 투표소에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되고 개표 결과는 밤 10시경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데다 민심의 풍향계라고 할 수도된 지역의 경우 인천 지역 기초의원 선거 외에는 없어 정치

적 현안에 대한 민심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하반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누가 거머쥐느냐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여수시 바 선거구에는 민주당 이선호(48·한영대 겸임교수) 후보와 민노당 김상원(46·민노당 여수시 민생특별위원 회 위원장) 후보 등 2명이 출마했다.

한나라당은 영남권 선거구 8곳에서의 전승을, 민주당은 호남권 선거구 2곳, 자유선진당은 충청권 선거구 3곳에서의 압승을 기대하고 있다.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감사원 1급이상 고위직 12명 사의

사무총장 등 쌀 직불금 파문 책임

감사원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2명이 쌀직불금 감사 논란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지난주말 김항식 감사원장에 의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 내부에서 쌀직불금 사태를 둘러싼 인적쇄신론이 본격 접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 6명과 사무총장 등 사무처장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6명이 개별적으로 김항식 원장에게 사의를 뜻을 전달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8일 “최근 감사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직들이 사의표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연론과 국민이 감사원의 쌀직불금 감사에 대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원장이 새로

취임한 뒤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쌀직불금 사태가 터져 감사원장에게도 면목이 없다”며 “당시 감사원의 쌀직불금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뚜렷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일단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일단 고위직들의 사의표명을 즉각 수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쌀직불금 감사경위에 대한 내부 감찰조사, 국회의 쌀직불금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행뉴스

산행 안내 18면 게재

제 권 판 결
사 건 : 2008카공 309
신청인: 김병호
판 결 : 광주 동구 소매동 440 대야이래는 100평 133호 이래특별 기재 등사에 대하여 2008. 7. 18. 공시되고 불 효력이, 그 공시되고서 정판 2008. 10. 27. 16:00까지 권리의 신고나 공표 불 효력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아래특별 기재 등지의 땅소 등지에 관한 등기의무자의 실권을 신고한다.
- 목 록 -
1. 부동산의 표시
가. 광주 동구 소매동 440 대야이래 2378 제곱미터 나. 광주 동구 소매동 440 대야이래 705 제곱미터 다. 광주 동구 소매동 440 대야이래 107 제곱미터 라. 광주 동구 소매동 440 대야이래 141 제곱미터
2. 등 기 소: 광주지방법원 등기부
3. 등 기 연월일 및 접수번호: 2008. 5. 19 접수 6988호
4. 권리의 내용: 소유권이전등기권기능
5. 가담기준자: 광주 동구 산수동 489 김백민
2008년 10월 27일
광주 지방법원
판사 장 용 기

합 병 공 고
산행문화연합회 제56조에 의하여 해남산행연합회와 옥주산행연합회는 2008년 10월 28일 각각 개최된 조인식에서 해남산행연합회와 옥주산행연합회를 흡수 합병하여 그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였고, 아울러 해남산행연합회와 옥주산행연합회 모두 소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따라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신고하여 주시바 라며, 위 기한내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하겠다고 이를 공표한다.
2008년 10월 28일
해남산행연합회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 72-16
이시장 최 보 열
옥주산행연합회
전남 진도군 신도읍 생령리 28-1
이시정적부대원 설 근 호

인 사 말 씀

이런 先親(故趙云泰 大陸建設株)會長 喪事時 바쁘신중에도 鄭重하신 弔意를 배풀어 주신 여러 어르신께 感謝를 드립니다.
慌忙中 일일이 찾아뵙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우선 紙面을 통해 고개속여 인사를 드립니다.
二〇〇八年 十月 二十九日

女婿 女子嗣 婦子
趙韓趙梁趙 成貞海寶成 玉富廷化來

外外外外外 孫 孫
孫孫孫孫孫 女 子
女婿女婦子 女 子

柳朴韓朴韓 映周鍾英恩榮 昭現賢
臣延淳淑慶爽 妍昶哲

신입/경력사원 모집공고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해동건설과 함께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선도할 주역들을 찾습니다.

분야	부문	종사자격	비고
토목	도로,환경,택지,농업,철민,교량	• 경력: 해당분야 3년 이상 유경력자 • 신입: 2008년 2월 졸업 및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영어 가능함자	해외 근무 가능함자
	건축 (개방)	• 국내-외개방(PF) 사업 • 신입: 2008년 2월 졸업 및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영어 가능함자	
관리	• 회계,총무 • 인사	• 해당분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유경력자 -영어 가능함자	
공통사항	1. 해당분야 자격증(기사) 소지자		

2. 전형절차
① 1 차 : 서류전형
② 2 차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3. 제출서류
① 신 인 : 자필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졸업(예정)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전학내성적증명서, 자격증사본
② 경 령 : 자필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4. 제출기한 및 문의처
① 문 의 처 : 해동건설(주) 기획관리팀 인사담당
T) 062-233-0040, 02-2198-5114, F) 062-233-0048, F)02-2198-5115
② 제 출 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58-2, E-mail : myden@ehaedong.com
③ 제 출 기 한 : 2008. 10. 30. 18 : 00까지

5. 기타
①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이력서 상단에 희망연봉, 지원분야 기재(비밀/경력)
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인사지원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됨
⑤ 국가 보호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무대함

海同建設株式會社

수완지구

본 월드 메디컬 센터 양
지하1층, 지상5층

- ▶ 수완지구 최고 중심상권
- ▶ 일일교통량 최대 승강장 옆
- ▶ 병·의원 임점 최적위치
- ▶ 수완지구 최고위치
- ▶ 경쟁력 있는 최저분양가격 (선점의 기회)
- ▶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환영
- ▶ 2009년 3월 준공

-환경을 방편하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치에 반하고 가격에 놀라는 그곳
월드메디컬센터
☎ 062) 952-1033, 010-7723-1033